

번호 I-7

제 목	국문	양·한방 협진 실태와 만족도에 관한 연구 - K 의료원의 사례를 중심으로 -			
	영문	A study on the state and satisfaction of the cooperation of East and West Medicine in K medical center			
저 및 저자	국문	위명주*, 윤태영, 최중명, 박순영, 유동준 경희대학교 행정대학원 의료행정학과*, 경희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영문	Myung Ju Wi*, Tai Young Yoon, Joong Myung Choi, Soon Young Park, Dong Joon Lew Dept. of Medical Administration, Graduate School of Administration, Kyung Hee University* Dept of Preventive Medicine, School of Medicine, Kyung Hee U.			
분야	보건관리 (○) 역학 () 환경 ()	발표자	일반회원 (○) 전공의 ()	발표 형식	구연 () 포스터 (○)
진행상황	연구완료(○), 연구중() → 완료 예정 시기 : 년 월				

1. 연구 목적

현대의학과 한의학이 병존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두 의학의 접근을 위한 여러 가지 시도가 있는데, 특히 양·한방 협진의 실태와 협진을 받는 환자들의 만족도를 조사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에 영향을 주는 시도에 대한 기초를 마련하고자 본 연구를 수행하였다.

2. 연구 방법

의과대학 부속병원과 한의과대학 부속병원을 함께 운영하는 K의료원에 입원하여 양·한방 협진을 받고 있는 양방환자 33명, 한방환자 103명을 대상으로 협진실태와 만족도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분석하였다.

3. 연구 결과

가. 질환별로는 뇌혈관 질환 환자가 가장 많았으며, 병원 선택이유는 양·한방 협진 하는 병원이어서가 양·한방 환자 모두에게서 가장 많아 병원 선택에 큰 영향을 미쳤다. 협진을 알게된 경로는 가족, 친지, 이웃을 통해서가 많았고, 협진 선택동기는 양·한방 모두 본인의 치료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생각으로 선택하였다.

나. 협진의 진료내용은 한방은 양방에 검사, X-ray, 특수검사, 양약, 주사 등 많은 것을 이용하였으며, 양방에서 한방으로 의뢰한 내용은 침, 보약, 한약이었다. 한 환자가 주로 한가지만을 택해 치료를 받고 있었다.

다. 협진 형태는 환자의 상태에 따라 협진 여부를 담당의사가 결정해 주는 것을 가장 많이 원하였으며, 처음부터 의사, 한의사와 함께 치료하는 것보다 도움이 되는 협진치료를 담당의사가 결정해 주는 것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라. 협진 접수절차는 주로 병실에서 처리해 주지만 양·한방 협진 진료를 위해 기다리는 문제, 결과에 대한 설명 부족을 불편사항으로 지적하였다. 협진진료에 대한 숫자는 입원비에 자동 산정되었지만, 상대편의 외래 보험 수가로 적용이 되었다.

마. 협진시 가장 큰 문제점으로 양방환자들은 의사들의 상대과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협진을 보기 가 어려움을 들었으며, 한방환자들은 치료비가 많이 드는 것을 지적하였다.

바. 협진시 가장 큰 장점은 양방에서는 한곳에서 양·한방 같이 봄으로 시간과 경비가 절약된다 였으며, 한방에서는 환자 상태에 따라 치료 방법의 결정이 빠르다였다.

사. 입원후 협진을 바로 선택하였는가라는 질문에서는 양방에서의 선택률이 낮았으며, 어떤 것이 치료에 도움이 될지 몰라서가 협진을 바로 선택하지 않은 이유였다.

아. 협진 치료에 만족은 과반수정도였고, 불만은 10%이하였다. 다른 환자에게 협진을 권유하겠다는 90%이상으로 대체로 양·한방 협진에 만족하고 있었다.

4. 고찰

협진의 정의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가 없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도 상호교환 진료적 행위를 협진으로 간주하였으며, 앞으로 이에 대한 양측의 협력이 시급하다는 생각이다. 협진이라는 방식이 현행 의료체계에서 병원이나 의료인들의 경제적 필요에 의하여 추진되어 서는 곤란하며, 의료인 상호간의 신뢰가 바탕이 되고 겸허하게 자기 학문의 한계점을 인식하고 상대방의 장점이 자기 학문의 한계점을 극복해 줄 것이라는 기대로 국민건강의 증진 을 협진의 목표로 삼아야 할 것이다.